

2025년 7월

월간 KOCHAM



월간 KOCHAM 정보

발행처 **브라질 한국상공회의소 (KOCHAM)**

발행인 유건영

편집인 KOCHAM 사무국

발행일 2025년 7월 24일

홈페이지 kochambr.com

이메일 info@kochambr.com

주소 Alameda Santos 700, Andar 8, Cerqueira Cesar, São Paulo, SP,

CEP: 01418-100



목차

- 1. 코참 활동
- 2. 회원사 탐방
- **3**. 공관 및 동포 소식

코참 활동 코참세미나 개최 및 신청 안내

회원사 탐방 공관 및 동포 소식

KOCHAM 브라질 한국상공회의소

코참 활동

코참세미나 개최 및 신청 안내 (8/14)



코참은 한국무역협회(KITA) 상파울루사무소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코참세미나 - 브라질 세제개편: 영향과 전망"을 개최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25년 8월 14일 (목) 14:00-17:00
- 장소: 법무법인 Demarest (Av. Pedroso de Moraes, 1201, Pinheiros, São Paulo, SP)
- 참가비: 회원사 무료, 비회원사 R\$ 150/인
- 프로그램
 - 세금 크레딧 보전 또는 활용 (연방, 주, 시 차원) Demarest
 - 브라질 세제 개편 진행 상황 및 향후 동향 KLA
 -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한 사회/문화 활동 후원 방안(CSR 활동) Lassori
 - 근로환경 내 정신적 손해배상 (노동법 실무 사례와 최근 제정된 NR-01 중심) - Lobo de Rizzo
 - 기업 대상의 사이버 공격 대응방안 Esstech
- 참가 신청 안내
 - 신청기한: 8월 8일(금)까지
 - 신청방법: 회사명/이름/직책/휴대폰 번호를 사무국에 이메일 (info@kochambr.com)로 전달
- 한-포 동시통역 제공, 브라질 임직원도 참석 가능

코참 활동 **회원사 탐방** ESSTECH

공관 및 동포 소식

KOCHAM 브라질 한국상공회의소

회원사 탐방

ESSTECH 김승주 대표



1. 회사 소개 간략히 부탁 드립니다.

삼성SDS에서 네트워크 운영업무를 시작으로 IT업계에 종사한지 벌써 32년이 넘었네요. 12년 전에 브라질에 오게 된 것을 계기로 2016년 3월에 ESSTECH를 설립하였습니다.

ESSTECH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IT서비스가 브라질기업이나 현지 직원들에게만 의존하여 여러 서 비스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설립하였고 현재 전반적인 IT운영관리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 습니다.

[주요 사업분야]

- 서버 및 클라우드 운영 및 관리
- 네트워크 및 보안 운영 및 관리
- 상주서비스 및 컴퓨터 유지보수
-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2. 브라질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그것을 극복한 사례가 있을까요?

한국문화 및 업무스타일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기업문 화 차이를 극복하고 서비스 마인드를 전파하는 것이 제일 큰 이슈였습니다.

첫째, 브라질 직원들이 반감이 적도록 한국문화를 고집하지 않고 한국과 브라질의 좋은 기업 문화를 접목해서 ESSTECH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설명하고 회식 때도 '함께 성장하자'라는 'Vamos crescer juntos!'를 항상 외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착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둘째, 의사소통 문제였습니다. 이는 어느 기업에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이고 결국 회사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일이어서 현재도 아주 능숙하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포어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포어 자격증에도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셋째는 직원들 교육 문제입니다. 회사가 전문성이 강조되는 IT분야여서 직원교육이 중요한데 이를 해결하고자 자격증취득도 회사에서 지원하고 매주 틈나는 대로 제 경험 및 노하우를 직원들에게 전수하는 교육시간을 가지는 등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하고 있습니다.

3. 올해 성과를 거두었거나 계획하시는 사업이 있나요?

올해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IT컨설팅을 진행하여 신규고객 확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10년이 거의되어가는데 아직 생각만큼 고객이 늘지 않은 것은 마케팅 활동에 소홀히 했던 게 주원인이라는 판단 하에회사를 좀 더 알리는 데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아직저하고 친한 분들 중에도 제가 어떤 회사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정도이니까요.

고객이 좀 더 늘고 직원들에 대한 투자 여력이 생겨야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제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4. 코참에 대한 기대나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요?

코참에 바라는 것은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많은 정보 및 교류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한국기 업과 브라질기업간의 사업적으로도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사도 더 확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고 이러한 방향에 대한 코참 집행부의 의지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코참 활동

회원사 탐방

공관 및 동포 소식

6·25 참전용사, 화랑무공훈장 수훈 브한문학협회, 독서와 낭독 종강식 한인회, 무료 의료 진료 봉사 진행 무용협회, 한국문화 체험 성료

공관 및 동포 소식

브라질 동포 역사상 최초, 故 조중철 참전용사에 화랑무공훈장 추서



주 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7월 11일, 6·25 참전용사 고(故) 조중철 선생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하고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브라질 거주 한인 참전용사가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랑무공훈장은 대한민국 무공훈장의 하나로, 전투에서 용감하게 헌신하고 뛰어 난 전과를 올린 이들에게 수여된다. 1950년 6.25 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5등급 무공훈장 중 네 번째 등급이다.

훈장을 받은 배우자 신 여사는 "살아계실 때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먼저 간 남편을 조국이 잊지 않고 찾아주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출처: 좋은아침)

브라질한국문학협회, 제3기 독서와 낭독 종강식 가져



브라질한국문학협회(대표 김진해)는 6월 29일(일) 오후에 상파울루한국교육원 (원장 박성근)에서 상반기 독서와 낭독 과정의 종강식을 개최했다.

종강식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한 가운데, 상파울루를 비롯해 리우데자네이루, 페르남부쿠 등 브라질 전역과 네덜란드 등 해외 거주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한 국어 문학을 읽고 낭독하며 언어적 역량과 문화적 이해를 한층 심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근 교육원장을 비롯해 통합 교육 센터의 João Luiz Cavalcante Carreira 교장이 참석하여 격려의 인사를 전했고,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일부를 회원들이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출처: 뉴스훅)



코참 활동

공관 및 동포 소식

6·25 참전용사, 화랑무공훈장 수훈 브한문학협회, 독서와 낭독 종강식 한인회, 무료 의료 진료 봉사 진행 무용협회, 한국문화 체험 성료

공관 및 동포 소식

한인회, 7월 무료 의료 진료 봉사 진행



브라질한인회(회장 김범진)는 7월 19일(토)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동양선교교회에서 7월 무료 의료 진료 봉사를 진행한 가운데, 약 20여명의 한인들이 진료 혜택을 받았다.

이번 달 봉사에는 아인슈타인병원 외과원장 김남진 박사를 비롯하여 4명의 브라 질한인의사협회(KOBRAMA) 소속 의사들이 참여하였고, 의대생들도 참여해 접 수와 사전 진료 및 당뇨와 혈압 체크 등을 진행해 주었다.

또한 김범진 회장을 비롯한 한인회 관계자들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KOWIN) 브라질지회(회장 이인숙) 회원들도 봉사에 참여하여 간식을 준비하고, 안내 등을 도와주었다. (출처: 뉴스훅)

브라질한국무용협회, 겨울방학 맞아 한국문화 체험 성료



브라질한국무용협회(단장 이화영, 회장 마이라)가 주최한 '겨울방학 맞이 한국문 화 체험학습'이 7월 18일(금) 막을 내렸다.

지난 10여 년간 방학 기간을 이용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려온 협회는 올해도 상 파울루한국교육원(원장 박성근)의 후원으로 강좌를 마련했다. 지난 14일부터 닷새간 봉헤찌로에 위치한 협회 연습실에서 열린 이번 체험학습에는 총 22명의 참가자가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무용 기본 동작부터 장구, 난타, 화관무, 탈춤, 부채춤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맛봤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박성근 교육원장이 직접 수료증과 협회가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출처: 좋은아침)

